

장수군, 충북 정경손 제례 봉행

애국충절 정신 본받아
매년 음력 3월 15일 거행

장수군은 지난 30일 향교 유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재란 당시 장수향교를 지킨 충북 정경손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이를 기리기 위한 제례를 거행했다.

장수향교(전교 양기홍)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제례는 당시 노비의 신분이었으나 자신을 희생하여 장수향교를 지키고자 한 충북 정경손의 애국충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제례에서는 한경훈 향교 유림이 초헌관을 장재선 유림이 아헌관, 박명규 유림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식을 거행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최경회 장군마저 진주성에서 순절한 후 장수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을 때 전라도 관문인 남원성을 침공하기 위해 진격하는 적군은 거침없이 육십령을 넘어 싸움 한 번 없이 장수 땅을 통과했다.

이때 향교지킴이 신분의 충북 정경손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홀로 성전에 남아 장수향교에 침입한 적군이 대성전까지 이르자 문보 앞에 꿇어앉아 경서를 외우며 말하기를 "민약 문에 들려거든 나의 목을 베고 달라"고 말했다. 이를 본 배군들도 그의 기개에 감복하여 본성역물범(本城域勿犯: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장수향교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장수군은 지난 30일 향교 유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향교 주관으로 충북 정경손의 제례를 거행했다.

현재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에 1846년(헌종 12년) 당시 정주 석 장수현감은 정경손의 거룩한 기개를 이어받기 위해 '충북정경손수정비'를 세웠고 군에서는 그의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 제례봉행을 거행하고 있다.

안동환 부군수는 "향교지킴이로서 직위의 고하를 떠나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완수해 낸 정경손의 정신을 우리 모두 본받고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향교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손의 의로움으로 지켜낸 장수향교 대성전은 1407년 어명으로

지어져 현재 보존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다포형 구조로 정면3칸, 측면4칸 규모이며 전면 1칸은 퇴칸으로 구성되어 외부로 트여 있는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장수향교의 의심문을 들어서면 명륜당이 있고 명륜당 뒤로 동재와 서재가 뜰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명륜당 동재와 서재로 형성된 강학공간 북쪽에는 별도의 담으로 둘러싸인 제향공간이 있다. 대성전은 보물 제27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자를 비롯한 5성인과 송조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페스티벌 프렌즈

홍보대사 배우 황찬성·박규영 선정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로 배우 황찬성과 배우 박규영을 선정했다.

지난 30일 산골영화제에 따르면 배우 황찬성은 영화 '덕수리 5형제'(2014), '레드캐펑'(2014)과 드라마 '육씨남정기'(JTBC, 2016), 7일의 왕비'(KBS2, 2017) 등에서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배우로서의 기대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천재 시인 이상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스모크'(2018)에서 바다를 꿈꾸는 인물 '해' 역으로 캐스팅되어 다재다능한 연기자로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배우 박규영은 영화 '괴물들'(2016)에서 '예리(보경)' 역으로 캐스팅되어 1인 2역 연기를 인상 깊게 선보였다. 이후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JTBC, 2017)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와 신선한 매력으로 주목받아, 현재는 웹드라마 '세상 잘 사는 지은씨에서 주인공 김지은 역으로 20대 여성들의 워너비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탠트를 발휘하는 황찬성, 박규영이야말로 무주산골영화제가 가진 다채로운 색깔과 닮았다"며 "무주산골영화제 페스티벌 프렌즈로서 무주의 숲에서 즐기는 낭만 영화제의 매력을 관

지역 매아리

진안군, 관내 하천 유지보수·정비

진안군은 올해 재난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에 13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하천 유지보수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진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집중호우로 하천에 토사퇴적이 발생하고 많이 않은 강우량으로 하상에 갈대와 수목이 식생하는 등 하천단면 축소로 인한 수해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군은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인 세동천 등 20개소, 소하천인 성암천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유지보수 정비 사업으로 시행키로 했다.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와 같은 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제 정비를 통하여 시설점검과 보강사업을 벌이고 있다. 준설작업을 통해 침수 원인이 되는 퇴적토 및 하천변 수목을 제거해 하천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다.

또한 심습적 퇴적구간 등 재해피해 예상구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퇴적토를 인근 농지에 제공해 우량농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우선 전 조기에 완료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하천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센터장 이수재)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27~29일까지 개최하는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귀농귀촌을 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업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167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전북도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부안, 정읍, 김제시가 참가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유용한 정보 및 예비 귀농 귀촌인들과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성공사례, 금융지원 컨설팅, 농기계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됐다.

군은 홍보관을 설치하여, 농업·귀농 귀촌지원정책 홍보 및 1:1상담을 진행하고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관 신청한 하면 액션캠, 드론 등 경험담청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얼리버드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가 여러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장수군 홍보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로 주말장터 가자!

오는 10월까지 IC 만남의 광장·반디랜드서 운영

무주군이 '농·특산물 판매 200억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5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장터를 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10월까지 IC 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6개월 간 150여 농가가 참여해 본인들이 직접 재배·가공한 천마와 더덕, 도라지, 사과, 육수, 꿀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김영종 농업 마케팅 담당은 "주말장터는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터"라며 "농기는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말장터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기능, 다용도 소포장 제품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래 품목과 수량을 다양화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신규 농가들의 참여를 늘리고 주말장터 자체도 명소화 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주말장터는 2015년부터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소득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반딧불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관내 384농가가 참여해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려 대도시 직거래장터, 온라인쇼핑몰, 대형 백화점 및 마트 입점과 함께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200억' 달성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5월 29일까지

무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된 9,15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완료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은 별도의 개별 통지 없이 군청 민원봉사과 지방세 창구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총무담당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관련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320-2284)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성진 후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필요"

농업인력지원센터 일자리 창출 우선 해야

장수군수 선거에 출마한 양성진 예비후보가 전북도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취지가 흐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성진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9월 동료 의원과 함께 도내 10개 시·군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 예비후보는 "발의 당시 농번기 농업 인력지원이 우선이었으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처럼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장수읍 소재 과수 농가에서는 작업 중이던 74세 노인이 사과 적화 작업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농촌 현실



양성진 후보

을 감안하지 않은 지원사업이 무슨 소용이나"며 비판하였다.

양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인력을 내국인과 가용인력이

많은 외국인으로도 대체하여 집중영농기간 인력이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농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농식품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세 | 750ml 1ea/12%

GIF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세 | 375ml 5ea/13%

GIF SET 6세 | 500ml 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90
www.gangsanwine.com